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(4차)

개최일시	2013.1.22(화) 18:00~24:00	회의장소	진관 휴게실
참석자 (12인)	오종근(교무처장), 조경원(총무처장), 신하윤(학생처장), 이명휘(재무처장), 서미옥(예산팀장), 봉우리(총학생회장), 김경내(총부학생회장), 박아름(사회과학대학대표), 정은우(경영대학대표), 홍석영(동아리연합회회장), 신경식(기획처장), 서지희(외부전문가) (총 12인)		
불참자 (1인)	나윤정(대학원학생회장)		
안건	2013년 등록금 심의 (4차)		
내용	<p>□ 개회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 등록금인상안에 합의할 수 없음을 표명하고 불참하다. 오종근 위원장이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를 개최하다.</p> <p>□ 회의내용</p> <p>1. 3차 위원회 회의록 검토 및 합의 -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다. - 4차 위원회 후 짧게 회의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다. - 다음 날 점심에 검토하기로 합의하다.</p> <p>2. 논의사항</p> <p>가. 2013년 가예산 재검토 및 등록금 산정 - 지난 회의에서 공유된 내용을 확인하다. - 등록금 동결을 가정한 2013년 가예산, 학부생 동결과 대학원 등록금 3% 인상을 가정한 2013년 가예산을 공유하고 예상되는 적자를 설명하다. - 수입부에서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고 미달되는 학생 수를 충원하고, 지출부에서 지출을 최대한 줄여 적자 규모를 줄일 것을 논의하다. -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수 1인당 책임학점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학생측에서 의견 개진하고 학교측에서 연구중심대학의 위상과 교수질에 관련된 연구의</p>		

필요성 등을 설명하다.

- 이후 학생대표자들과 처장님들과의 협의회 자리를 보장 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학교측에서는 학생처가 주최하는 협의회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하다.

나. 등록금 산정

- 적립금 원금의 일부를 등록금회계의 경상비로 사용하여 등록금 인하 할 것을 요구하다. 이에 대해 세대 간 공평배분을 위해 적립금 원금은 사용할 수 없고 기금이자 일부만을 등록금회계로 사용 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.

- 현재 등록금의 절대액수가 너무나 높고 2000년 초반에 등록금이 10%씩 인상되었을 때 부당하게 등록금이 인상되었음을 이야기하다.

- 등록금이 오르던 그 시기는 대학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다.

- 교육의 질이 높아진 것은 좋으나,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 매진할 수 없고, 등록금부담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할 수 없으면 그 질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다.

- 절대 빈곤의 학생들은 어떤 경우에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,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복지가 낮아질 수 있음을 설명하다.

- 아무리 장학금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다.

- 학교 정문에 짓는 웰컴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입부에 책정되어 있는지 질문하고 웰컴센터에서 기념품을 판매한다면 ECC에 있는 기념품 판매점을 학생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다

- 수입부에 일부 반영되어 있음을 설명하다.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음은 학교의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며 ECC의 기념품 판매점은 생협 공간임을 설명하다.

-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이 너무나 크고 학교측에서 등록금 인하에 대한 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다.

-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이 동결 혹은 인하되면서 재정운영이 힘들지만 학교의 안이 무조건적인 동결은 아니며 상징적으로라도 인하를 하는 노력을 보일 것을 제안하다.

- 부가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서라도 1% 이상의 인하를 할 것을 이야기하다.

- 학부 등록금이 인하되더라도 대학원 등록금이 인상되면 부담전가로 비춰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다.

- 현재 이화여대의 귀족학교 이미지를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대학들이 동결 혹은 인상을 하는 추세에서 1.5% 정도는 인하를 하는 것을 제안하다.

- 실질적으로 1.5% 인하는 어려우며 등록금을 낮춘다면 연구학생경비에서도 감축을 하여 고통분담을 해야 함을 주장하다.

- 연구학생경비를 감축한다면 등록금인하의 의미가 없음을 설명하다.

- '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'는 것에 동의한다면 어려워도 1% 이상의 인하가 필요함을 주장하다.

- 예금이자율도 축소되어 수입이 감소하였고 재정운영상 1.5% 인하는 불가능하며 감축의 노력을 한다면 1%정도 인하가 가능함을 설명하다.

- 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을 생각하여, 대학원 등록률을 높이고 대학원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여서 연구학생경비를 감축하지 않고 인하할 것을 주장하다.

- 대학원과 학부의 이해관계가 나뉘는 것이 아니며 학부의 등록금 인하를 일반대학원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동의할 수 없고 또한 오늘 바로 합의를 하기에는 너무 논의 시간이 짧았음을 이야기하다.

다. 5차 등심이 진행에 대한 논의

- 학교의 등록금 인하에 대해 노력한 것은 고맙게 생각하나 합의를 전제로 한 인하 안이 아니라 학교가 최선을 다하여 만든 인하 안과 그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이야기하다.
- 현재 재정현황을 고려했을 때 학교의 입장에서 1.5%인하는 사실상 무리이지만 합의가 분명하게 전제된다면 더 노력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설명하다.
- 학교 측에서도 인하안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 5차 등심위에서 가능한 최선의 인하안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공유할 것을 요구하다.
- 등록금 고지 일정을 고려했을 때 4차 등심위에서는 최종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다.
- 학생위원들은 오늘 합의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학교 측에서 학부등록금 1.5%인하와 대학원 등록금 3% 인상을 가정한 가예산과 대학원 중 일반대학원은 동결했을 때를 가정한 가예산을 제시하고 5차 등심위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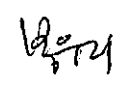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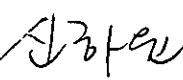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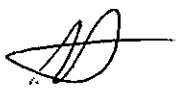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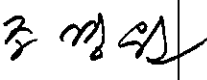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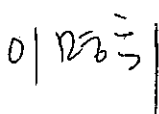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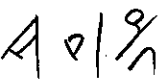

□ 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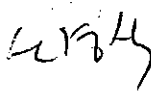
- 학교 측이 다음날 점심에 진행 될 5차 등심위에서 가능한 구체적인 가예산을 제시하고 다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다.

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 함.

2013년 1월 21일

확 인

직 위	성 명	서 명	직 위	성 명	서 명
위원장	오종근		위원	봉우리	
위원	신하윤		위원	김경내	
위원	조경원		위원	박아름	
위원	이명휘		위원	정은우	
위원	서미옥		위원	홍석영	

	위 원	신 경 식		위 원	나 윤 정	불 참
	위 원	서 지 희	